

서평 | Review

로베르 리카르의 『멕시코 영혼의 정복』

조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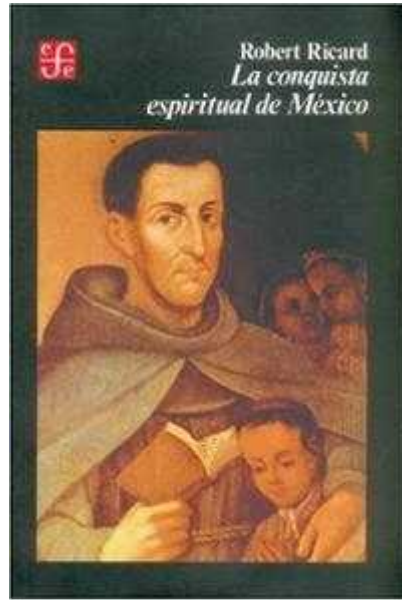
1. ‘영혼의 식민화’의 주체: 탁발수도회

세계지도에 그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대륙, 전대미문의 문명과의 만남이라는 충격과 함께 16세기는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한마디로 인식론적 충격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변혁과 적응이라는 과제가 공존했던 혼란과 희망의 시대였다. 1492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폭력을 앞세운 유럽 열강에 의해 점령당하고 식민화되었다. 이를 일컬어 역사가들은 ‘정치적 정복’, 혹은 ‘군사적 정복’이라고 부른다. 그럼 식민지 원주민의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반강제적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프랑스의 사학자 로베르 리카르(Robert Ricard, 1900~1984)는 식민지 주민의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 식민화 과정을 ‘영혼의 정복’(Conquista espiritual)이라는 말로 대치했다. 유럽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화요 선교 과정의 일부였지만, 원주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정복이었기 때문이다. 군사적 정복을 상징하는 칼과 종교적 전파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작동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식민 지배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주민 사회에 대한 복음화는 군사적 정복과 동시에, 혹은 그 이후에 진행된 원주민 정신문화, 혹은 원주민 영혼에 대한 식민화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16세기는 정복의 시기이자, 신대륙의 식민화, 복음화, 그리고 원주민의 문명화

라는 여러 다른 목적이 정치·종교적 기획 하에 결합된 시기였다.

영혼의 정복이라는 시각에서 라틴아메리카 식민 초기 역사를 바라보는 리카르에게 이 시대의 주인공은 탁발수도회 수사였다. 이 수사들은 군대보다 더 철저히 상명하복을 따르는 그룹이었고, 희생정신이 투철했으며, 학문적 측면에서 보면 지식인 계층 속했다. 이들이 소속된 수도회는 신앙으로 무장된 ‘영혼의 기사단’, 혹은 그리스도교 문명과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의 군단’으로 불렸다. 수사들은 마치 중세 기사들과 같이 전투에 임

하듯 신대륙 복음화에 투신했다. 그래서 스페인 왕실은 이들의 종교적 열성을 이용했고, 식민지 개척의 명분은 그리스도교 전파와 복음화라는 구실로 정당화되었다.



로베르 리카르의 『멕시코 영혼의 정복』

2. 라틴아메리카 교회사 연구의 이정표

‘영혼의 정복’이란 단어는 토리비오 데 베나벤테(Toribio de Benavente), 일명 모톨리니아(Motolinía)로 더 많이 알려진 프란치스코회 수사가 16세기에 처음 사용한 단어였다. 하지만 이 용어에 현재 사용하는 의미를 담아 부활시킨 공은 리카르에게 있다. 그는 1933년 소르본대학교 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시험장에서는 심사위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 찬사는 박사학위논문의 1차 자료가 방대하고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의 정복’이라는 발상과 그것을 설명하는 진지함 때문이었다. 이 논문은 후일 『멕시코 영혼의 정복: 1523년 또는 1524년에서 1572년까지 누에바 에스파냐 탁발수도회의 선교 방법과 사목에 대한 논평』(La conquista espiritual de México. Ensayo sobre el apostolado y los

métodos misioneros de las órdenes mendicantes en la Nueva España de 1523-1524 a 1572)이란 제목으로 출판되면서 학계에 알려졌다. 멕시코의 앙헬 마리아 가리바이 신부에 의해 1947년 스페인어로 번역되었고, 1986년 멕시코의 저명 출판사인 경제문화재단(Fondo de Cultura Económica)을 통해 재출간되었다. 1966년 버클리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영어로 출판된 이후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리카르는 식민초기 스페인 선교사들에 의해 전개된 멕시코 복음화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책의 부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6세기 전체의 역사를 다루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1523년(혹은 1524)에서부터 1572년까지로 제한했다. 그의 연구가 탁발수도회의 전교활동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탁발수도회의 황금시기’라고 부르는 시기만 다룬 것이다. 이 초기 50년 동안은 탁발수도회가 교황이나 스페인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고, 선교나 사목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권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리카르는, 플랑드르 지역 출신의 프란치스코회 수사 세 명이 누에바 에스파냐에 발을 디는 1523년부터 언급했다. 하지만 공식적 선교가 시작된 해는 프란치스코회 수사 열두 명이 스페인에서 파견된 1524년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전 선교사의 활동은 개별적인 활동이었지, 제도교회가 공식적으로 주도한 측면이 부족했다고 본 것이다(75).¹⁾

그는 연구 대상 기간을 1572년까지로 제한했다. 1572년은 바로 탁발수도회가 아닌 예수회가 누에바 에스파냐 선교를 시작한 해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탁발수도회가 주도하던 선교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회가 주도한 친원주민적인 사목 정책이 의심받기 시작했고, 사목과 교회 행정의 주도권이 탁발수도회에서 교구, 즉 주교의 손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교회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고 리카르는 판단한 것이다.

리카르는 누에바 에스파냐 전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금의 치아파스, 유카탄, 타바스코, 키타나로 등 오늘날 마야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연구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멕시코 북부지역과 오늘날 미

1) 참고문헌에서 밝힌 『멕시코 영혼의 정복』(La conquista espiritual de México) 스페인어본이며, 이 책의 인용은 모두 괄호 안에 페이지만 표시한다.

국의 남서부 지역도 다루지 않았다. 리카르는 주로 멕시코의 중앙고원지역으로 당시 아스테카 제국의 영토의 범주에 들어가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리카르가 종교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이유는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다. 논문을 쓰기 위해 멕시코와 스페인, 프랑스 지역의 자료를 차분히 수집하고 연구에 10년 간 매달릴 수 있었던 것도 성직자라는 직업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학계에서는 많은 역사가들이 유럽의 국경확장이란 시각에서 정치,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며 식민사를 기술하고 있었다. 리카르는 아메리카

정복과 식민시기 동안 종교 분야가 중요성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새로운 역사서를 기획했다. 그의 관심은 16세기 스페인 선교사가 수행한 누에바 에스파냐의 복음화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정복과 식민화의 대상이었던 종교와 문화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켰다. 에르난 코르테스만이 정복의 전형이 아니라 교회도 정복의 중요한 한 축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로서 리카르는 군사적 정복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정복과 식민시대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로베르 리카르
출처: <http://filosofia.org/>

3. 『멕시코 영혼의 정복』 이전과 이후

리카르의 『멕시코 영혼의 정복』은 기존의 탄탄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저작이었다. 멕시코 식민사의 대가인 호아킨 가르시아 이카스발세타(Joaquín García Icazbalceta)의 다양한 글은 리카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리카르는 자신의 작품 『멕시코 영혼의 정복』을 이카스발세타에게 헌정했다. 또한 예수회 신부인 마리아노 쿠에바스의 『멕시코

교회사』(Historia de la Iglesia en México)에도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쿠에바스의 작품은 1921년 1권을 시작으로 총 5권으로 정리되었고, 여기에 소개된 방대한 자료와 원천자료는 리카르 뿐 아니라 멕시코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기본서 역할을 해주었다. 그 밖에도 라몬 가르시아 뮤이노스(Ramón García Muiños), 로버트 스트레이트(Robert Streit) 등 여러 신부가 쓴 선교 관련 역사서가 그의 연구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었다. 여기에 더하여 에라스무스와 16세기 스페인 역사의 대가인 마르셀 바타욘(Marcel Bataillon)의 여러 글도 리카르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가 16세기 선교 역사를 정리하는 데 리카르에게 도움을 준 것이라면, 아래에 연구자와 저술은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먼저 페드로 보르헤스(Pedro Borges)는 리카르와 같은 시각에서 1960년 『16세기 아메리카를 그리스도교화한 선교 방법』(Métodos misionales en la cristianización de América, Siglo XVI)라는 책을 저술했다. 엔리케 두셀은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교구. 원주민 보호 기구(1504-1620)』(El episcopado latinoamericano. Institución misionera de defensa del indio 1504-1620)란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것은 두셀이 소르본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이었다. 이 연구는 원주민을 대변한 주교의 활동을 보여주고 초기 교구가 지닌 선교적 측면을 잘 부각시켰다. 당시 파리에 있던 로베르 리카르가 직접 지도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두셀에게 미친 그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볼 수 있다.

호세 마리아 코바야시의 『정복으로서 교육. 멕시코에서 프란시스코회의 사업』(La educación como la conquista. Empresa franciscana en México)은 복음화 과정 뿐 아니라 서구식 교육을 영혼의 정복 과정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리카르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리카르의 연구를 더욱 세분화하고 심화시켰다.

1987년 출판된 크리스티앙 뒤베르제의 『누에바 에스파냐의 원주민 개종. 베르나르디노 데 사아군의 12사도의 대화의 텍스트(1564)와 함께』(La conversión de los indios de Nueva España. Con el texto de los Coloquios de los Doce de Bernardino de Sahagún, 1564)는 원주민이 그리스도교화된

측면과 함께 그리스도교가 원주민화한 측면도 부각시켰다. 일부 프란치스코회 선교사가 취했던 원주민 문화에 대한 관용적 자세가 멕시코 가톨릭의 독특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는 선교사가 누에바 에스파냐 환경과 원주민 문화에 적응한 측면을 잘 보여줌으로서 리카르의 연구의 단점을 보완해 주었다. 뒤베르제의 연구는 민중적 성격의 종교성이 강조된 멕시코 가톨릭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6세기 멕시코 건축』(Arquitectura mexicana del siglo XVI)을 쓴 조지 큐블러(George Kubler)는 리카르가 발전시키지 못한 16세기 종교건축을 다루었다. 그의 연구는 스페인인이 원주민 건축물을 어떻게 파괴했고, 공간들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했는지 잘 보여준다. 새로 건축한 서구식 건물인 대성당, 수도원, 관청 자체는 새 종교 질서와 정치·문화적 패권이 어디에 있는지 원주민에게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이것은 서구 문화의 우월성과 지배의 정당성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연구는 리카르가 개척해 놓은 새로운 길을 따라간 저술이며,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선교방법과 특징, 교육 분야, 원주민 보호 등 선교와 복음화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와 현지 상황에 적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멕시코 영혼의 정복』의 주요 내용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부는 교회의 설립, 2부는 교회의 공고화, 3부는 사목의 내적, 외적 어려움에 대해 다룬다. 1부는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 민족지학과 언어 문제, 선교지의 분배, 세례, 교리교육, 전례와 성사의 운영, 그리고 멕시코 교회 설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부에서 리카르는 가톨릭 선교와 복음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복과 선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분리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76). 정복

자인 에르난 코르테스조차 신앙 전파와 원주민의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정복자 중에서 군인의 신분을 버리고 수도회에 입회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리카르는 교회의 설립이라는 관점에서 누에바 에스파냐 선교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누스회 등 탁발수도회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탁발수도회 수사는 원주민의 전통 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했고, 우상숭배 근절을 선교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106-107). 수사들은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개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페인인이 정복하기 이전 아스테카나 마야 등의 문명과 문화, 특히 역사, 관습, 종교, 우주관을 연구했다. 수사들은 새로운 문화와 문명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에서 최초의 민족지학(etnografia) 연구가 시작되었다.

수사들은 선교 초기 현지 언어 정복 없이 원주민 개종이나 복음화가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효과적인 선교와 원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가장 큰 장애요소인 언어문제를 극복해야 했다. 대부분은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용되던 나우아틀어를 배우려 했다. 그러나 수사들이 배운 언어는 담당할 선교지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결정되었다(119). 각각의 수도회는 다양한 원주민 언어를 연구하여 사전을 편찬하거나 문법책을 저술하면서 언어 교육을 체계화했다. 수도회는 수사에게 원주민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했고, 아우구스티노회의 경우는 원주민 언어를 배우는 것을 아예 의무화시켰다(120).

초기 탁발수도회는 원주민 인구가 밀집된 지역, 즉 기존 원주민 부족들의 정치, 행정 중심지, 금과 은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광산지역을 주요 선교 대상지로 선정하려고 했다. 선교 여건을 고려할 때 인구의 밀집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러나 원주민 인구뿐 아니라 기후, 토질, 재정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146). 수도원이 건설되는 위치는 선교지 분할이나 수도회의 선교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수사가 군사 정복과정에 동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복자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수사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먼저 선교에 투입된 프란치스코회는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 주요 선교지를 우선적으

로 배당 받는 특권을 누렸다. 멕시코시티, 푸에블라, 트라스칼라 등 중앙 고원 지역의 주요 도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가장 좋고, 넓은 지역을 할당 받았다. 수도원과 수사의 규모로 볼 때 가장 활동적인 선교를 펼쳤다. 반면, 뒤 늦게 합류한 아우구스티누스회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시골, 척박한 지역을 선교지로 배당받았다. 그러나 각 수도회는 선교지 확정 문제 때문에 초래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선교지를 나누었다(153).

리카르는 초기 선교에서 신심활동과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역사가이다. 그는 미사, 세례와 견진, 고백성사, 종부성사와 같은 전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리고 선교 경쟁에 뛰어드는 수도회 간 신학적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도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특히 프란치스코회가 주도한 집단세례에 대한 논쟁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었다(174-175).

2부에서 리카르는 선교 과정을 통해 교회가 멕시코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기술했다. 수사는 도시에 살던 일부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주민이 산간 오지나 계곡, 절벽, 정글 등에 소규모의 부락 단위로 분산되어 살아가는 것이 선교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주민을 한 곳으로 모으는 정착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세금 징수나 노동력 통제를 위해 인구를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를 느낀 행정당국도 적극적으로 정착촌 건립에 참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다(235). 각 수도회는 경쟁적으로 원주민 정착마을을 조성했다. 길을 포장하고, 관개시설을 정비하여 조성한 마을은 나중에 식민지 도시로 발전했다. 중부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선교공동체(misión)가²⁾ 설립되었다. 선교공동체에서는 선교사와 원주민이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원주민 개종이 쉽고 개종 후 교육이나 신자 관리가 용이했다. 개종자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리카르는 선교공동체 설립이 선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251).

리카르의 연구는 특히 선교에서 문화적·예술적 선교 방법을 강조하고

2)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미션》에서 ‘미션’도 ‘선교공동체’라는 뜻이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요소가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보조수단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에서 그림과 벽화, 음악과 노래, 그리고 춤, 종교극 등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음악과 서양의 다양한 악기, 새로운 노래 양식은 원주민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민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했다(283-284). 또한 선교를 위해 연극이 이용되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원주민이 배우가 되었고, 원주민 언어로 연극이 재현되었다는 점이다(312). 리카르는 수사가 낯선 원주민 문화와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비교적 효과적인 선교를 펼칠 수 있었던 이유를 문화적·예술적 선교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리카르는 선교와 교육의 연관성에 주목했다(320-346). 교리교육이 중요했는데, 일반적으로 주일 미사 후에 가르쳤다. 원주민 귀족 자녀에게는 수도원 부속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어린이에게 집중한 교리교육은 미래 세대의 개종을 위한 전략이었다. 원주민 학교에서는 기술과 직업 교육도 이루어졌다. 리카르는 원주민 귀족 자제를 한 곳에 모아 교육시킨 사실에 주목했다. 틀라스칼라의 산타크루스학교는 단순한 학교로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미래 원주민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334). 리카르는 원주민 성직자 양성에 반대하던 식민지 농장주(encomendero) 때문에 자생적인 원주민 중심의 그리스도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원주민은 사제 서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원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교계 제도는 완성될 수 없었다(347-355). 원주민은 교회 내에서도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3부는 사목의 내부 문제로서 수도회와 주교의 권한 사이의 갈등과 수도회와 교구사제³⁾ 사이의 분쟁 등을 다룬다. 16세기 중반 이후 1572년을 기준으로 점차 교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도원과 수사보다는 주교와 교구사제의 영향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3부에서 리카르는 영혼의 식민화에 대한 원주민의 저항이라는 문제를 잊지 않고 다루었다.

3) 교구사제(sacerdote secular, 또는 재속사제)는 교구에 소속된 사제로, 신부이다. 수도사제(sacerdote religioso, 또는 수사신부)는 사제 신분과 수도자 신분을 겸비하고 있으며 수도회 소속이다. 일상적인 용법에서 신부는 교구사제의 범주에 속하고, 수사는 수도사제의 범주에 속한다.

5. 『멕시코 영혼의 정복』에 대한 비판과 평가

『멕시코 영혼의 정복』은 16세기 초·중반 약 50년간에 해당하는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의 선교 역사를 다루었다. 스페인어 번역본은 약 500페이지 분량을 자랑한다. 그러나 리카르도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일부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지 못하고 누락시켰다. 예를 들면, 라스 카사스 신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라스 카사스는 치아파스 주교였고, 원주민 보호 활동과 원주민 인권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리카르는 라스 카사스를 선교활동보다 이념 논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25). 리카르가 치아파스를 연구 대상지에서 배제한 탓도 있고, 논문을 쓸 당시까지만 해도 라스 카사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카르는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 교구사제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나치게 탁발수도회 중심으로 16세기 선교사를 기술했다. 교구사제의 활동이 수사의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은 사실이나 결코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었다. 리카르는 탁발수도회를 다루면서도 주로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 벌인 활동에만 집중하다보니 각각의 수도회가 스페인에서부터 보여준 독특한 전통이나 특징, 그리고 고유한 정신 같은 주제는 간과했으며, 이런 개별 수도회의 특성과 신대륙 선교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예를 들면, 프란치스코회 내의 한 분파인 엑스트레마두라 지역의 회칙준수파 수사(Observantes)는 어떤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특성이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 선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는지는 논의하지 못했다. 그 결과, 리카르는 초기 선교사의 유토피아적이고 종말론적이고 휴머니즘적인 특징을 잘 부각시키지 못했다. 특히 피오레의 요아킴 수사의 사상과 천년왕국설의 상관성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다. 존 펠란(John Phelan)과 조르주 보도(Georges Baudot)는 16세기 선교와 관련해서 천년왕국과 종말론, 유토피아가 자주 언급될 뿐 아니라 세 요소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년왕국설과 요한묵시록의 종말사상이 16세기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카르의 연구에서는 초기 프란치스코회 선교사가 왜 그토록 서두르며 원주민 개종 사업에 매진해야 했는지, 어떻게 50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선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왜 구대륙보다 신대륙에서 그리스도교 미래의 희망을 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그의 연구는 구조적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신세계에 스페인적 그리스도교 문명을 이식하려는 기획과 원주민을 토대로 새 그리스도교 문명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획 간의 충돌이나 갈등 등을 잘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리카르의 『멕시코 영혼의 정복』은 다분히 교회중심적이고, 유럽중심적인 역사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교나 복음화의 대상이었던 원주민의 시각, 즉 피정복자의 시각이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워낙 원주민의 시각이 반영된 사료가 적고 일차 자료가 부족한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미겔 레온 포르티야(Miguel León Portilla)의 ‘패배자들의 비전’(Visión de los vencidos)과 라틴아메리카교회사 위원회(CHEILA)와 같은 기관이 강조한 ‘타자’나 ‘희생자’의 시각이 반영된 역사 기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이후였기 때문이다. 리카르 역시 교회와 성직자 중심의 교회사 연구라는 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의 저작 속에는 원주민과 같은 타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나우아틀 어나 다른 원주민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리카르에게 이런 시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유럽인이며 가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교회와 유럽, 그리고 성직자 중심의 역사 서술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리카르 연구의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리카르의 『멕시코 영혼의 정복』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퇴색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가 이 저작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군사적 정복’은 ‘영혼의 정복’ 없이 완성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영혼의 정복 과정이 라틴아메리카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군사적 정복보다 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더 복잡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멕시코 영혼의 정복』은 읽기 어려운 작품이지만 라틴아메리카 식민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히 정복해야 하는 산이다.

참고문헌

- Baudot, Georges(1983), *Utopia e historia en México: los primeros cronistas de la civilización mexicana, 1520-1569*, Madrid: Espasa-Calpe.
- _____ (1990), *La pugna franciscana por México*, México: CONACULTA and Alianza Editorial Mexicana.
- Borges, Pedro(1960) *Métodos misionales en la cristianización de América*, Siglo XVI. Madrid: Biblioteca Mionalia Hispanica.
- Cuevas, Mariano(1975). *Documentos Inéditos del Siglo XVI para la historia de México*. México: Porrúa.
- _____ (1992). *Historia de la Iglesia en México*. Tomo I. México: Porrúa.
- Dussel, Enrique(1992). *Historia de la Iglesia en América Latina. Medio milenio de coloniaje y liberación (1492-1992)*. Madrid: Mundo Negro-Esquila Misional.
- Duverger, Christian(1996). *La conversión de los indios de Nueva España*. México: FCE.
- Gómez Canedo, Lino(1988). *Evangelización y conquista. Experiencia franciscana en Hispanoamérica*. México: Porrúa.
- Kobayasi, José María(1997), *La educación como conquista*,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Kubler, George(1982). *Arquitectura mexicana del siglo XVI*. México: FCE.
- León-Portilla, Miguel(2003), *Visión de los vencidos. Relaciones indígenas de la Conquista*. México: UNAM.
- Phelan, John(1956), *The Milenian Kingdom of the franciscans in the Now World. A study of the Writings of Jeronimo de Mendieta(1523-1603)*,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 Ricard, Robert(1995). *La conquista espiritual de México: ensayo sobre el apostolado y los métodos misioneros de las órdenes mendicantes en la Nueva España de 1523-1524 a 1572*.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조영현 — 서울대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